

금속노조 7·13 총파업·상경 투쟁 선포

“가자, 서울로. 적폐 청산하고 산별교섭 쟁취하자” ...3만 조합원 서울 집결, 현대차 포위 예정

금속노조가 7월 13일 노동·재벌 적폐 청산과 산별교섭 쟁취,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총파업을 전개한다.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주·야간조 6시간 파업을 벌이고 상경해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본사 포위 투쟁을 벌인다.

노조는 7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금속노조 7.13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7월 13일 ▲하후상박 연대임금 쟁취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벌이고, 서울 양재동에 집결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차 3불임금인상, 하후상박 연대임금, 금속산업노사공동위 불가 가이드라인 분쇄, 하후상박 임금인상, 노사공동위 쟁취로 산별교섭 강화 ▲재벌 적폐 청산 불법과건 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임금삭감·노동조건 저하 없는 52시간제 쟁취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사법 농단 양승태 구속, 노동 적폐 청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2018년 입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다. 이번 투표는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조합원 93,18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투표 대상 조합원 중 78,63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자 대비 79.7%가 찬성해 쟁의행위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7·13 총파업은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가 동시에 참여한다. 현대자동차지는 지난 3일 73.87%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기아자동차지는 2018년 입단협 출정식을 벌이고, 금속노조 총파업에 복무한다. 쟁의권 없는 사업장은 총회, 교육 등 가능한 모든 형태로 총파업 상경 투쟁에 참여한다.

이날 파업을 벌이고 상경한 수도권, 충청권 등 조합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사법 적폐 청산과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벌인다. 이밖에 포스코사내하청 조직화 관련, 고강일투미 늪지회 투쟁 관련, 대우버스지회 투쟁 관련,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불법과건 관련,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저지 투쟁 관련 지부와 지회들은 사전 결의대회를 벌인다. 이후 파업 조합원들은 양재동으로 이동해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본사 포위 투쟁을 전개한 뒤 ‘적폐 청산 산별교섭 쟁취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다.

노조는 “사회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와 자본은 손을 놓고 있다. 이제

노동조합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금속노조 7.13 총파업은 재벌과 정부가 그어 놓은 선을 넘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지난 수개월 동안 하후상박 연대임금과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을 위한 금속산별노사공동위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반응이 없고, 현대차 등

자본은 아무것도 못 한다며 버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금속노동자와 이웃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에 나선다”라고 비장하게 총파업을 공식 선포했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금속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현대차그룹은 모든 금속노동자를 위한 노사공동위 구성과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거부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양재동 포위 투쟁을 벌이는 이유를 설명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성동조선 정리해고와 지원받은 혈세로 직접고용 불이행 과태료를 내겠다는 한국지엠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모든 수단을 다해 저항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금속노조 위원장과 지부장들은 총파업 머리를 서로 묶어주며 총파업 상경 투쟁 승리를 다짐했다.

“인간답게 살려고 금속노조 선택했다”

대전충북지부 현대모비스 충주지회 설립... “인간 대접 않는 사용자에게 맞서 투쟁 벌인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현대모비스 충주지회지회장 김민우가 깃발을 올렸다

노조 현대모비스 충주지회는 7월 8일 충주의료원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대모비스 충주지회 조합원들은 김민우 지회장, 장용호 부지회장, 임종태 사무장을 선출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지회 규칙을 결정하고, 신별 기금 납부를 결의했다. 향후 투쟁계획도 논의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한 지역의 노동자들과 전국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공장에서 일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총회에 함께하며 현대모비스 충주지회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의 가입 대상 노동자는 현재 900명이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은 자동차 전장 제품을 만들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총회 축사에서 “30년 전 선배 노동자들이 외친 두발 자유화, 비인간 대우 철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올려 달라는 요구가 2018년에 이어지고 있다”라며 “인간 대접을 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맞서 투쟁을



벌어야 한다. 현장에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싸우자” 라고 격려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투쟁하는 노동자와 반드시 연대하고 투쟁을 지원한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에 금속노조 깃발이 튼튼히 서도록 금속노조가 함께 하겠다”라며 “앞으로 일주일간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에서 조직확대 사업을 벌이겠다. 지부 간부들이 함께해 최대한 조직을 확대해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대전충북지부 현대모비스 충주지회 조합원들은 총회 결의문에서 “노조를 만든 이후 회사 측 사정으로 휴업을 하면 휴업 임금을 받

고 근무시간 외에 청소하지 않아도 되며, 최저임금 인상은 1월일부터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라고 고백했다. 조합원들은 “비인격 대우를 개선하고,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금속노조를 선택했다” 라고 밝혔다.

이날 설립총회에 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경기지부 현대모비스 화성지회, 현대모비스 평택지회 현대위아 인산지회, 울산지부 현대모비스 울산지회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이 들 다섯 지회 대표들은 현대모비스 충주지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회는 첫 조직확대 사업으로 7월 9일 아침 출근 선전전을 벌였다. 이날 출근 선전전에서 8일 뺀 현대모비스 충주지회 임원들이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금속노조 가입 홍보물을 나누어 줬다. 대전충북지부 소속 사업장 조합원들과 현대모비스 평택지회, 현대모비스 화성지회, 현대모비스 울산지회 동지들이 함께했다.

현대중공업지부 비정규직·정규직·일반직 하나로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대회 통합 시행 규칙 통과... “현중자본 구조조정 맞서 함께 투쟁”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박근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조직을 합쳐 함께 싸우기로 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7월 9일 속개한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통합 시행 규칙 제정 건을 통과시켰다. 통합 시행 규칙 제정 건은 지부 대의원 129명 중 찬성 69명, 반대 60명으로 통과됐다.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모두 금속노조 소속이지만

하나의 조직형태를 구성하지 못했다. 이번 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세 조직은 현대중공업지부로 합쳐 함께 활동하게 된다.

앞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7월 6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해당 인건을 논의했지만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7월 9일 속개해 다시 논의했다. 지부 대의원들은 현대중공업 자본이 추진하는 비정규직화와 외주화에 맞서려면 원하청이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인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현대중공업 안에 1만6천여 명의 하청노

동자가 있지만, 대다수가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번 조직통합 건 통과에 따라 사내하청노동자 조직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원하청 조직통합에 대해 회사의 ‘아웃소싱 전면화’와 ‘비정규직 확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